



반드시 반복되는 수능 국어 기출의 논리

수능 국어 학습의 출발, 홀수 기출 분석 시리즈

박광일 선생님이 강조하는 올바른 수능 국어 기출 분석법을
홀수 기출 분석 시리즈에 모두 담았습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

- 1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의 성격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 줍니다.
- 2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에서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 3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에서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합니다.
- 4 기출 분석은 수능 국어 문제의 유형과 물어보는 방식을 이해하게 하고 정답을 도출하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길러 줍니다.
- 5 기출 분석은 문제를 틀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게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수능 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출 분석은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과정이 아니라,
영역별로 지문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정답과 오답을 결정하는
정확한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

단계별 학습을 통해 수능 국어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요소를 파악하고, 어떻게 근거를 찾아 정답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1 단계 / 8주 완성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 최신 6개년 평가원 기출 공통 과목의 전 문항을 영역별로 수록하여, 수능 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지문별 CHECK POINT와 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 지문과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고,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체화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적 문제', '모두의 질문' 등과 함께 자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제시하여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단계 / 5주 완성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상) 학력평가



- 최신 7개년 학력평가에서 수능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기출을 선별하여 수록했습니다.
- 'PART 1 문학'은 수능 빈출 작가의 낯선 작품과 문제를 통해, 수능에서 어떤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PART 2 독서'는 수능 빈출 개념을 상세하게 다룬 지문과 문제를 통해, 고난도 독서를 대비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 단계 + N / 8주 완성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 최신 평가원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고난도 평가원 기출을 선별하여 더욱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출 분석 1~2단계를 거치며 체화한 지문 분석, 문제 풀이 방법을 적용하여 훈련함으로써 수능 국어 고득점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최신 6개년 평가원 기출 공통 과목을 평가원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 OMR 카드를 활용하여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문제를 풀고 난 후 약점 CHECK 분석표를 작성하여 나의 취약점을 진단함으로써 수능 국어 고득점을 위한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학습 (8주 완성)



홀수 공부법 TIP

- ☑ **1단계에서는** 총 2권의 책을 학습합니다. 기출 분석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모든 지문마다 '지문 분석 빈칸 채우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빈칸을 채우며 지문 독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문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후 해설 책을 볼 때에는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분석 내용과 자신의 독해 과정을 비교해 보고, 다양한 학습 장치를 참고하여 선지의 정·오답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때 핵심은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정확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 ☑ **1~2일차에는** 2026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고 해설 책에 수록된 '박광일의 CHECK POINT'를 참고하여 최신 수능 국어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문제 풀이를 점검합니다.
- ☑ **3일차부터는** 각 영역별 [기본] → [심화] 순으로 기출 분석을 합니다.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에서는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과 [심화]를 각 지문의 상단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기출 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는 [기본] 지문을 학습한 후 [심화] 지문을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기출 문제는 수능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학습자마다 시기별 학습 순서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원하는 지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에서는 최신 6개월 기출을 연도순으로 배치했습니다.

학습 주차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독서]
1주차	INTRO 수능 4 SET 기본 PART 1 현대시 6 SET 기본	INTRO 수능 4 SET 기본 + 심화 PART 1 독서론 6 SET 기본
2주차	PART 1 현대시 4 SET 심화 PART 2 고전시가 5 SET 기본 PART 2 고전시가 1 SET 심화	PART 1 독서론 8 SET 기본 PART 2 인문·사회 2 SET 기본
3주차	PART 2 고전시가 3 SET 심화 PART 3 현대소설 7 SET 기본	PART 2 인문·사회 6 SET 기본 PART 2 인문·사회 4 SET 심화
4주차	PART 3 현대소설 3 SET 기본 PART 3 현대소설 6 SET 심화 PART 4 고전산문 1 SET 기본	PART 2 인문·사회 5 SET 심화 PART 3 과학·기술 5 SET 기본
5주차	PART 4 고전산문 10 SET 기본	PART 3 과학·기술 3 SET 기본 PART 3 과학·기술 7 SET 심화
6주차	PART 4 고전산문 2 SET 기본 PART 4 고전산문 3 SET 심화 PART 5 갈래 복합 5 SET 기본	PART 3 과학·기술 2 SET 심화 PART 4 주제 복합 5 SET 기본
7주차	PART 5 갈래 복합 3 SET 기본 PART 5 갈래 복합 4 SET 심화	PART 4 주제 복합 5 SET 기본 PART 4 주제 복합 2 SET 심화
8주차	PART 5 갈래 복합 5 SET 심화	PART 4 주제 복합 5 SET 심화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상) 학력평가 학습 (5주 완성)

2 단계

홀수 공부법 TIP

☑ **2단계에서는** 문제 책의 각 지문마다 '평가원 연계 POINT'를 수록하여 학력평가 기출에서 발견한 평가원 기출의 학습 요소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풀어 보면 좋을 평가원 기출을 안내하였습니다. 『홀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에서 해당 기출 지문을 찾아 오늘 풀어 본 문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복습합니다.

☑ **매일매일** 1단계에서 학습한 지문 분석법과 문제 풀이법을 떠올리며 문학과 독서를 한 세트씩 풀고, 해설 책을 참고하여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가 찾은 근거와 해설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학습 주차	PART 1 [문학]	PART 2 [독서]
1주차	CHAPTER 1 현대시 5 SET	CHAPTER 1 인문 5 SET
2주차	CHAPTER 2 고전시가 4 SET CHAPTER 3 현대소설 1 SET	CHAPTER 2 사회 5 SET
3주차	CHAPTER 3 현대소설 4 SET CHAPTER 4 고전산문 1 SET	CHAPTER 3 과학 5 SET
4주차	CHAPTER 4 고전산문 4 SET CHAPTER 5 갈래 복합 1 SET	CHAPTER 4 기술 5 SET
5주차	CHAPTER 5 갈래 복합 5 SET	CHAPTER 5 주제 복합 5 SET

*해당 교재에는 세부 계획표가 제공됩니다.

이 책은 3단계 계획표를 활용하여 학습하세요!

3 단계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학습 (8주 완성)

홀수 공부법 TIP

☑ 3단계에서는 총 3권의 책을 학습합니다. 먼저 1~2단계에서 학습한 지문 분석법과 문제 풀이법을 떠올리며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 독서]』에서 각각 한 세트씩 풀고 해설 책을 참고하여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가 찾은 근거와 해설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는 ❶ 실천처럼 제한 시간을 두고 문제를 풀어 봅니다. ❷ 채점을 한 후 '약점 CHECK 분석표'를 작성하여 영역별, 문제 유형별로 나의 취약점을 진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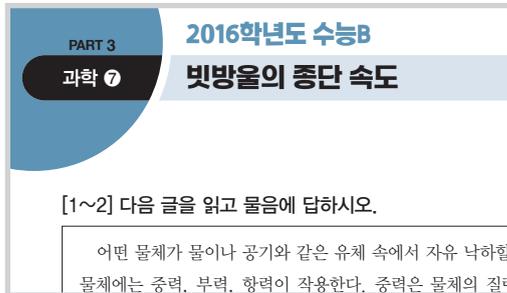
학습 주차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문제 책 페이지	홀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독서]	문제 책 페이지	홀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페이지	학습 체크	
1 주차	1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①	P.014	PART 1 _ 인문 · 예술 ①	P.014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②	P.016	PART 1 _ 인문 · 예술 ②	P.016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③	P.018	PART 1 _ 인문 · 예술 ③	P.020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④	P.020	PART 1 _ 인문 · 예술 ④	P.022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⑤	P.022	PART 1 _ 인문 · 예술 ⑤	P.024			<input type="checkbox"/>
	6일차 (월 일)					1회차	P.011	<input type="checkbox"/>
	7일차 (월 일)					2회차	P.023	<input type="checkbox"/>
2 주차	1일차 (월 일)	PART 1 _ 현대시 ⑥	P.024	PART 1 _ 인문 · 예술 ⑥	P.026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2 _ 고전시가 ①	P.028	PART 1 _ 인문 · 예술 ⑦	P.028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2 _ 고전시가 ②	P.030	PART 1 _ 인문 · 예술 ⑧	P.030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2 _ 고전시가 ③	P.032	PART 1 _ 인문 · 예술 ⑨	P.032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2 _ 고전시가 ④	P.034	PART 2 _ 사회 ①	P.036			<input type="checkbox"/>
	6일차 (월 일)					3회차	P.035	<input type="checkbox"/>
	7일차 (월 일)					4회차	P.047	<input type="checkbox"/>
3 주차	1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①	P.038	PART 2 _ 사회 ②	P.038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②	P.040	PART 2 _ 사회 ③	P.040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③	P.044	PART 2 _ 사회 ④	P.042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④	P.048	PART 2 _ 사회 ⑤	P.046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⑤	P.050	PART 2 _ 사회 ⑥	P.048			<input type="checkbox"/>
	6일차 (월 일)					5회차	P.059	<input type="checkbox"/>
	7일차 (월 일)					6회차	P.071	<input type="checkbox"/>
4 주차	1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⑥	P.052	PART 2 _ 사회 ⑦	P.052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⑦	P.054	PART 2 _ 사회 ⑧	P.054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⑧	P.056	PART 3 _ 과학 ①	P.058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⑨	P.058	PART 3 _ 과학 ②	P.062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⑩	P.060	PART 3 _ 과학 ③	P.064			<input type="checkbox"/>
	6일차 (월 일)					7회차	P.083	<input type="checkbox"/>
	7일차 (월 일)					8회차	P.095	<input type="checkbox"/>

학습 주차	출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문학]	문제 책 페이지	출수 기출 고난도 선별 (하) 평가원 [독서]	문제 책 페이지	출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	페이지	학습 체크	
5 주차	1일차 (월 일)	PART 3 _ 현대소설 ⑩	P.062	PART 3 _ 과학 ④	P.066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①	P.066	PART 3 _ 과학 ⑤	P.068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②	P.070	PART 3 _ 과학 ⑥ PART 3 _ 과학 ⑦	P.070 P.072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③ PART 4 _ 고전산문 ④	P.072 P.074	PART 3 _ 과학 ⑧	P.074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9회차	P.107	<input type="checkbox"/>
	6일차 (월 일)					10회차	P.119	<input type="checkbox"/>
	7일차 (월 일)					11회차	P.131	<input type="checkbox"/>
6 주차	1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⑤	P.076	PART 3 _ 과학 ⑨ PART 3 _ 과학 ⑩	P.076 P.078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4 _ 고전산문 ⑥ PART 4 _ 고전산문 ⑦	P.078 P.082	PART 3 _ 과학 ⑪	P.080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①	P.086	PART 4 _ 기술 ①	P.084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②	P.090	PART 4 _ 기술 ②	P.086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12회차	P.143	<input type="checkbox"/>
	6일차 (월 일)					13회차	P.155	<input type="checkbox"/>
	7일차 (월 일)					14회차	P.167	<input type="checkbox"/>
7 주차	1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③	P.094	PART 4 _ 기술 ③	P.088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④	P.096	PART 4 _ 기술 ④	P.090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⑤	P.098	PART 4 _ 기술 ⑤	P.094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⑥	P.100	PART 4 _ 기술 ⑥	P.096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⑦	P.102	PART 4 _ 기술 ⑦	P.098		<input type="checkbox"/>	
	6일차 (월 일)					15회차	P.179	<input type="checkbox"/>
	7일차 (월 일)					16회차	P.191	<input type="checkbox"/>
8 주차	1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⑧	P.104	PART 4 _ 기술 ⑧	P.100		<input type="checkbox"/>	
	2일차 (월 일)	PART 5 _ 갈래 복합 ⑨	P.106	PART 4 _ 기술 ⑨	P.102		<input type="checkbox"/>	
	3일차 (월 일)	PART 6 _ 극 ①	P.110	PART 5 _ 주제 복합 ①	P.106		<input type="checkbox"/>	
	4일차 (월 일)	PART 6 _ 극 ②	P.112	PART 5 _ 주제 복합 ②	P.110		<input type="checkbox"/>	
	5일차 (월 일)	PART 6 _ 극 ③	P.114	PART 5 _ 주제 복합 ③	P.114		<input type="checkbox"/>	
	6일차 (월 일)					17회차	P.203	<input type="checkbox"/>
	7일차 (월 일)					18회차	P.215	<input type="checkbox"/>

출수 기출 분석 시리즈 6개월 학습 PLAN을 마친 후에는
 수능 때까지 '출수 기출 평가원 최신 [문학 / 독서], 위주로 반복 학습하되,
 '출수 기출 N회독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 파악한 나의 취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 첫째** 2012학년도~2020학년도 평가원 기출 독서 영역에서 박광일 선생님이 엄선한 꼭 풀어 보아야 할 기출을 수록했습니다.
- 둘째**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문제 책과 해설 책으로 분권하였으며, 해설 책에도 문제를 재수록하여 문제와 해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문제 책



박광일 선생님이 엄선한 고난도 기출 수록

엄선된 고난도 지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전 문항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한 세트당 문항 수를 고려하여 3문항은 5분, 4문항은 7~8분, 6문항은 8~10분 이내에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박광일의 VIEW POINT

박광일 선생님이 해당 기출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평가원의 최신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출제 요소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학습 방향을 제시합니다.

박광일의 VIEW POINT

자유 낙하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체의 운동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해서 다소 까다로운 편이지만, 유체 핵심 개념 간의 비례 관계를 파악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연습을

해설 책

사고의 흐름

4 빛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빛방울의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다. 빛방울이 낙하할 때: 항력 · 부력<, 중력> → 낙하 속도↑ → 물체의 운동 속도↑ → 항력↑ → 항력 + 부력 = 중력 16이때 (항력 + 부력 = 중력)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므로 빛방울

사고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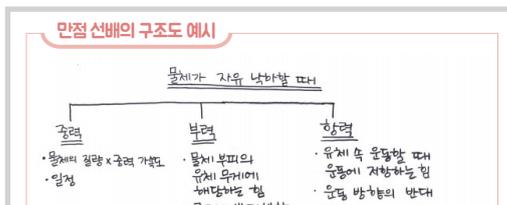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논리적인지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사고의 흐름을 통해 출제자의 관점에서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챙기자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풀이하여 기출 분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챙기자

- *유체: 기체와 액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상용: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



만점 선배의 구조도 예시

지문 구성 원리를 파악하여 자신만의 구조도를 그려 본 후 만점 선배의 구조도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문항의 정·오답에 대한 근거와 해설을 친절하게 제시하여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빠른 정답 찾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항별로 제시된 문제의 유형과 정답률을 통해 나의 약점 유형을 진단하고 체감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 책

| 구체적 상황에 적용 | 정답률 66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¹명제 A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²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³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명제 A와 명제 B: 모두 참인 것은 불가능

모두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가 참인 것은 가능 = 반대 관계
→ A와 B는 모순 관계 X

✔ 정답풀이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근거: ²⁵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²⁶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 <보기> ¹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A)"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B)"는 반대 관계이다. ~²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도 존재한다. <보기>에서 A와 B 중 하나만 참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A가 '참'으로 나타나거나 B가 '참'으로 나타나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항 해설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보기> 분석과 모든 문항의 정·오답의 근거를 담은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모두의 질문

• 2-⑥번

Q: <보기>에서는 기준 금리가 '변하면' 물가 상승률이 달라진다는 언급밖에 없는데, 금리가 올라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1문단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

문제적 문제

• 5-②, ③, ④, ⑥번

학생들이 정답만큼 혹은 정답보다 많이 고른 선지가 ③번과 ④번이다. 나머지 선지를 또한 정답과 비슷한 비율로 선택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결하여 푼 학생이 아주 적었다고 볼 수 있다.

[A]에서는 만유인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두 질점의 질량과 거리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를 통해 구를 구성하고 있는 부피 요소는 하나의 질점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한 겹의 구 껍질이나 구 껍질이 모여 만든 구는 각각 그것과 동일한 질량을 갖고 구 껍질이나 구의 중심에 있는 질점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모두의 질문 & 문제적 문제

온라인 강의와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하여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을 고르는 방법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평가원의 관점

• 2-③, ④, ⑥번

이의 제기

③번과 ④번의 내용은 추론 가능하고, ⑥번의 내용은 추론할 수 없지 않나요?

답변

③번은 소리의 울림에 의해 소리가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다양해질 경우, 음원의 위치 파악이 더 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윗글에서 음원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두 귀까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는데, 소리가 울리는 실내라면 한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가 반사되면서 귀까지 도달하는 소리가 다양해지므로 음원이 여기저기 있는 것

평가원의 관점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한 평가원의 답변을 모두 수록하여 평가원의 관점과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문·예술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PART 1	①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2019학년도 수능	P.014	P.006
	②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이익과 최한기의 인체관	2019학년도 6평	P.016	P.012
	③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2017학년도 6평	P.020	P.018
	④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2016학년도 수능B	P.022	P.023
	⑤ 회화주의 사진	2016학년도 9평AB	P.024	P.027
	⑥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2015학년도 수능AB	P.026	P.031
	⑦ 신채호의 역사관	2015학년도 수능B	P.028	P.035
	⑧ 추사 김정희의 목란화	2015학년도 9평AB	P.030	P.040
	⑨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2012학년도 수능	P.032	P.044

사회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PART 2	① 소유권의 공시 방법	2020학년도 9평	P.036	P.050
	②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	2019학년도 수능	P.038	P.056
	③ 채권과 CDS 프리미엄	2019학년도 9평	P.040	P.062
	④ 정부의 정책 수단	2018학년도 수능	P.042	P.068
	⑤ 통화 정책	2018학년도 6평	P.046	P.075
	⑥ 보험	2017학년도 수능	P.048	P.080
	⑦ 부관의 법률적 효력	2016학년도 수능AB	P.052	P.086
	⑧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2016학년도 6평AB	P.054	P.091

과학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PART 3	① 개체성의 조건과 공생발생설에 따른 진핵생물의 발생	2020학년도 6평	P.058	P.098
	② LFA 키트의 원리와 특성	2019학년도 6평	P.062	P.105
	③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2017학년도 수능	P.064	P.112
	④ 열역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	2017학년도 9평	P.066	P.117
	⑤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2017학년도 6평	P.068	P.122
	⑥ 지레의 원리에 담긴 돌림힘	2016학년도 수능A	P.070	P.127
	⑦ 빗방울의 중단 속도	2016학년도 수능B	P.072	P.131
	⑧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2016학년도 9평B	P.074	P.135
	⑨ 달과 지구의 공전 궤도	2015학년도 수능B	P.076	P.138
	⑩ 각운동량	2014학년도 9평B	P.078	P.142
	⑪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2013학년도 수능	P.080	P.145

기술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PART 4	①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	2019학년도 9평	P.084	P.152
	②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	2018학년도 수능	P.086	P.157
	③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2018학년도 6평	P.088	P.163
	④ 콘크리트를 통해 본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	2017학년도 9평	P.090	P.169
	⑤ CPU 스케줄링	2015학년도 9평A	P.094	P.175
	⑥ 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 원리	2014학년도 수능A	P.096	P.179
	⑦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2014학년도 9평A	P.098	P.184
	⑧ 디스크 스케줄링의 네 가지 방식	2013학년도 6평	P.100	P.187
	⑨ 이어폰으로 소리의 공간감을 구현하는 원리	2012학년도 수능	P.102	P.191

주제 복합		기출 연도	문제 책	해설 책
PART 5	① 서양과 동양의 천문 이론	2019학년도 수능	P.106	P.198
	②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과 영화에 대한 벤야민의 견해	2019학년도 9평	P.110	P.206
	③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양자 역학과 비교전 논리	2018학년도 9평	P.114	P.212

PART 1



인문·예술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답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

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2.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가능세계의 개념과 명제 간 관계를 다룬 지문으로, 철학적 개념과 언어 논리적 사고가 결합되어 독해 난도가 높았다. 모순 관계와 무모순율, 가능성과 필연성, 가능세계의 네 가지 성질인 일관성, 포괄성, 완결성, 독립성과 명제 성립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풀이에 어려움이 있다.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화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연습을 하기에 적합한 기출이다.

3.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구조도 그리기

4. 뒷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제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문(全體新論)』 등 흠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최한기는 『전체신문』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흠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문』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의학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조선 학자들의 인체관을 설명하는 지문이다. 서양 의학에 관한 아담 샬의 『주제군징』과 홉슨의 『전체신론』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인 조선의 사상가 이익과 최한기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복수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하는 연습을 하기에 적합한 기출이다.

1.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의 주장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 근대의 인체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체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 ② 아담 샬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 ③ 이익과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 ④ 아담 샬과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
- ⑤ 『주제군징』과 『전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윗글을 참고할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 ②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 면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 ③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 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다.
- ⑤ 서양 의학이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 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심장은 오장(五臟)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에서 나온다.

㉡.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 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 신기는 대소(大小)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PART 2

사회

문제 책 페이지	해설 책 페이지	SET	문제 번호 & 정답					
P.036	P.050	사회 ❶	1. ㉔	2. ㉔	3. ㉒	4. ㉓	5. ㉑	
P.038	P.056	사회 ❷	1. ㉓	2. ㉔	3. ㉑	4. ㉓	5. ㉑	
P.040	P.062	사회 ❸	1. ㉒	2. ㉔	3. ㉒	4. ㉓	5. ㉑	
P.042	P.068	사회 ❹	1. ㉑	2. ㉔	3. ㉑	4. ㉔	5. ㉓	6. ㉒
P.046	P.075	사회 ❺	1. ㉑	2. ㉔	3. ㉑	4. ㉔		
P.048	P.080	사회 ❻	1. ㉓	2. ㉔	3. ㉔	4. ㉑	5. ㉔	6. ㉑
P.052	P.086	사회 ❼	1. ㉑	2. ㉓	3. ㉔	4. ㉒		
P.054	P.091	사회 ❽	1. ㉔	2. ㉔	3. ㉔	4. ㉑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교의 흐름

1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2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3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4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점유'와 '소유'라는 개념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시했네! 이어지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전 정보니까, 두 개념의 뜻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파악해 두자!

2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6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7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8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9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10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11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점유의 유형(직접점유, 간접점유)과 기능(소유자를 공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네! 문단 전체가 [A]로 표시되었으니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겠지? 많은 개념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개념들을 구분하여 꼼꼼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12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소유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유효한 양도 계약 2 소유권 양도 공시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군! 13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14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15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16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17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18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19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수인이 1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은 2 간접점유하여 3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에 점유 인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 보자!

20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 제시되었네! 21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2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1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하여 소유자를 확인했고 2 유효한 계약이며 3 점유 인도로 소유권 이전 공시를 했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선의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구나! 23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예외적 상황이 간단히 제시되었네! 이러한 정보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어야겠어! 24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선의취득이 이루어지면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는군!

25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26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27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날 수 있다. 28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9 과 같은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취득을 허용하지 않는구나! 30 과 비교해서 정리해 두자!

앞서 언급된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겠군!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려나 봐! 집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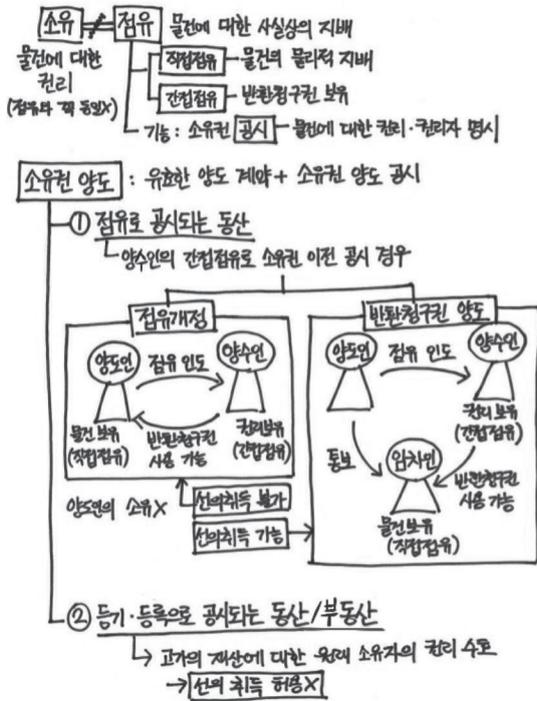
	㉠	㉡	㉢
소유권 공시 방식	점유	등록	등기
선의취득 가능 여부	○	×	
중시하는 것	거래 안전	소유자의 권리 보호	

이것만은 챙기자

- *동산: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 *양도인: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
- *양수인: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사람.
- *부동산: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 *경시: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김.

	양도인 (기존 소유자)	양수인
점유개정	직접점유 유지 (소유권만 양도)	간접점유 (반환청구권 획득)
반환청구권 양도	간접점유하던 물건의 반환청구권 양도 (+ 직접점유자에게 통보)	간접점유 (반환청구권 획득)

민집 선배의 구조도 예시



세부 정보 파악 | 정답률 59

1.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풀이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근거: ③¹²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가방의 소유권은 유효한 양도 계약과 소유권 양도의 공시가 모두 이루어져야 이전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근거: ①²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 ②⁵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접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근거: ①²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③³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④⁴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근거: ②¹¹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 ③¹²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③¹³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가방은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에 해당되므로, 그 소유권이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로 공시되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근거: ②¹⁰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①¹¹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 세부 정보 파악 | 정답률 65

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근거: ②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⑩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⑪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 ③ ⑫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피아노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이므로,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소유권을 양도받으려면 점유에 해당하는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오답풀이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근거: ②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⑥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⑦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동산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면 직접점유자가 된다. 간접점유자는 물건에 대한 물리적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 점유자를 의미한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근거: ②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⑪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간접점유 역시 점유에 해당되므로, 간접점유를 통해서도 피아노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근거: ②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⑥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⑦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하나의 동산에 대해 한 인물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직접점유(물리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근거: ① ②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③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 ②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⑥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⑦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⑪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직접점유자는 피아노를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점유 상태에 있는 인물이며, 간접점유자는 피아노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배자이다. 하나의 피아노에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는 피아노를 물리적으로 지배하지 않더라도 피아노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 있는 인물, 즉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세부 내용 추론 | 정답률 54

3.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
-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
-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

정답풀이

㉡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근거: ㉠ 21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 25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26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27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28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은 물건의 진짜 소유자의 권리보다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 안전을 중시하기에 선의취득을 허용하는 대상인 반면, ㉢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취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대상이다.

오답풀이

- ㉠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근거: ㉢ 25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26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점유로 공시되는 ㉠과 달리 ㉢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된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는 대상은 ㉠이 아닌 ㉢이다.
- ㉢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근거: ㉠ 21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2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 ㉢ 26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27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 점유로 공시되지 않는 것은 고가의 재산에 대해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유권 박탈이 일어날 수 있는 선의취득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근거: ㉠ 21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22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 ㉢ 25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26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의 경우 양수인이 주의를 기울였지만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대상이다. 즉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 ㉢은 ㉠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근거: ㉤ 13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14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 ㉢ 26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은 점유 인도로 소유권 양도가 가능하며, 점유 인도에는 '점유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은 점유 인도(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양도)가 아닌 등기를 통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이다.

모두의 질문 3-3번

Q: ㉢은 ㉠과 다르게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A: ㉢의 예시로 제시된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의 예시로 제시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의 '동산'과 다르게 물리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선 5문단에서 이러한 ㉢에 대해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일정한 형태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2문단에서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하였는데, ㉢은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토지나 건물은 일상적으로 '빌려 쓰'거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대상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뒷글에서 ㉢이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기에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고 언급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즉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 상황에 적용 | 정답률 37

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¹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²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갑 → 을, 점유개정을 통한 점유 인도) ³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그러나 점유개정을 통해서 갑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을은 소유권의 선의취득 불가) ⁴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을 → 병,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한 점유 인도)

정답률이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근거: ③ ¹⁶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 ④ ²¹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²²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²³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 <보기> ²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갑은 을에게 금반지의 소유권을 양도하되, 보관은 갑이 하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점유 인도를 하였다. 이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갑이 금반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을은 금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이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오답률이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거: ③ ¹⁸이때(가방의 소유자인 C가 E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¹⁹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 <보기> ⁴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갑과 을, 을과 병 사이의 점유 인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갑과 을 사이의 점유개정을 통해 을에게 넘어간 금반지의 소유권이 을과 병 사이의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 다시 병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는 갑이 하고 있더라도 금반지의 실질적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병이 취득하게 된다.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③ ¹⁵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¹⁶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 <보기> ²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갑과 을 사이의 점유 인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갑은 금반지에 대한 물리적 지배 상태인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을은 금반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점유 인도를 받게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② ⁷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 ③ ¹²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¹⁴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 ¹⁸이때(가방의 소유자인 C가 E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¹⁹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 ④ ²⁰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²¹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보기> ⁴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고, 을이 최종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과의 거래를 통해 반환청구권을 보유한 간접점유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갑의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계약을 거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병에게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보기>에서 을은 유효한 양도 계약을 거쳐 병에게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거: ③ ¹⁸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¹⁹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 ④ ²¹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²³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 <보기> ⁴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병은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 을로부터 점유 인도를 받았다. 따라서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에 따라 병에게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을에게 소유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과 을의 계약 시에 양도인(을)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을이 정말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의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문제적 문제

• 4-③, ④, ⑤번

학생들이 정답 선지 다음으로 많이 고른 선지가 ④번과 ⑤번이다. 지문은 그 자체의 길이는 길지 않지만, 길지 않은 분량 속에 '소유' 및 '점유'와 관련된 개념들의 설명이 복잡하게 얽히며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유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점유 인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했을 뿐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태와 관계, '점유 인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했다. 해당 문제의 경우, '점유 인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 적용해 보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와 관련하여 추론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③번, ④번, ⑤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심층적인 사고가 요구되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④번은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닌' 상황에서 '을이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3문단에 따르면 '점유 인도'는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에 대해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로 나뉘는데, 4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점유 인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점유개정'을 통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반환청구권 양도'를 통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3문단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점유개정이나 반환청구권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양도인이 정말로 소유자였는지의 여부나 최종적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반환청구권 양도에 따른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간주할 수는 있는 것이다.

⑤번은 <보기>의 상황에 따라 '점유 인도' 더 정확히는 점유 인도의 유형 가운데 '반환청구권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닌' 상황에서 병이 이미 충분히 주의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다. 즉 ④번에서 '점유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자체를 물어보았던 것과 달리, '점유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의 결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병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문단에 제시된 '선의취득'의 조건에 따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정답인 ③번에서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닌' 상황에서 갑과 을 사이에는 '점유개정'이, 을과 병 사이에는 '반환청구권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로 (1) 을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지의 여부와 (2) 병이 이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모두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4문단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점유개정'을 통해서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닐 시 '선의취득'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우선 (1) 을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전제부터 틀린 것이 된다. 그에 따라 (2) 병이 을의 소유권을 양도받는 상황도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③번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률 분석

	정답	매력적 오답	매력적 오답	
①	②	③	④	⑤
8%	15%	37%	22%	18%

| 어휘의 의미 파악 | 정답률 86

5.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풀이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근거: ㉠ ²⁷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와 '일어나게 된다'의 '일어나다'는 모두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오답풀이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일어나다: 소리가나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일어나다: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어나다: 어떤 마음이 생기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나므로써 발전한다.
일어나다: 몸과 마음을 모아 나서다.